

문화탐방

조선시대 제주도 물목장 [馬場·牧馬場]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오 창 명

1. 서 론

조선시대 제주도 물목장[馬場·牧馬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한라산 주변을 중심으로 10개의 큰 물목장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는 물목장에 대해서 꽤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표준어 속담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것이 있다. 망아지는 말의 고장인 제주도에서 길러야 하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울로 보내어 공부를 하게 하여야 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제주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은 제주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주사람이 제주에서 태어난 말[馬]을 제주로 보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속담은 제주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속담은 표준어 속담뿐만 아니라, 제주 이외의 여러 지역 속담으로 자주 쓰여 왔다. 제주사람들이 이 속담을 쓸 때는 이렇게 썼다. “말은 나민 상산드레 올리곡(보내곡), 사름은 나민 서월르레 보내라.”, “말은 나민 한라산드레 올리곡(보내곡), 사름은 나민 서월르레 보내라.” 제주에서 태어난 말을 제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자유롭게 뜯어먹을 수 있는 한라산이나 상산 일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

지 않은 듯하다.

이제 조선시대 제주 톨목장과 톨과 관련된 이야기 몇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제주마 방목지에서 자유로이 풀을 뜯고 있는 암말과 망아지

2.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톨[馬] 목축(牧畜)을 시작했을까?

제주도에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톨 목축을 시작했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토산(土產)’ 조를 보면, 톨[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元)나라가 지원(至元) 중(中)에 탐라(耽羅)를 방성(房星) 분야(分野)라 하여, 목장(牧場)을 설치하고, 단사관(斷事官)을 보냈다. 혹은 만호(萬戶)로서 축목(畜牧)을 주관(主管)하게 했다.”

원나라는 몽골의 칭기즈 칸(Chingiz Khan: ? 1167~1227) 후예가 통일한 나라이고, 지원(至元)은 원나라 세조와 순제 때의 연호로, 여기서는 세조 때 연호로, 1264년부

터 1293년까지 해당한다. 방성(房星)은 28수(宿)의 넷째 별자리의 별들로, 말[馬]의 수호신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래서 천사방성(天駟房星)이라 하고, 말의 조상[馬祖]으로 일컬어져서, 마조단(馬祖壇)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단사관(斷事官)은 정치와 형벌[政刑]을 아울러 맡은 벼슬이고, 만호(萬戶)는 고려시대에 순군만호부 및 지방의 여러 만호부에 속한 무관 벼슬을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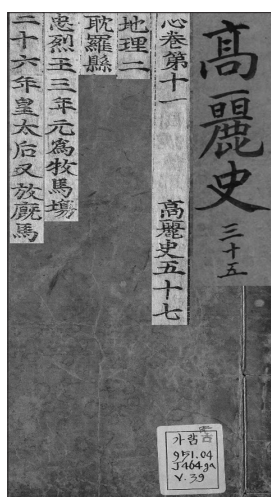
『고려사(高麗史)』 ‘탐라현(耽羅縣)’ 조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제주목’ 조 앞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탐라현(耽羅縣)……충렬왕(忠烈王) 3년(1277)에 원나라가 이 지역에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하였다.……〈충렬왕〉 26년(1300)에 원나라 황태후(皇太后)가 또 말(廐馬)을 방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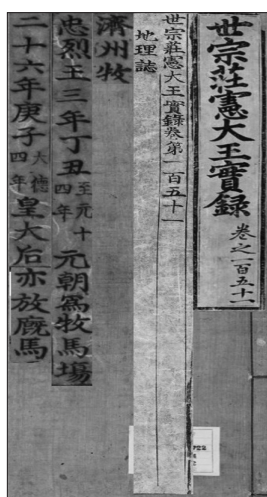
〈『고려사(高麗史)』 권57 ‘탐라현(耽羅縣)’ 조〉

“충렬왕(忠烈王) 3년 정축(丁丑)【지원(至元) 14년(1277)】에 원나라 조정(朝廷)에서 〈탐라를〉 목마장(牧馬場)으로 삼았다.……〈충렬왕〉 26년(1300) 경자(庚子)【대덕(大德) 4년】에 원나라 황태후(皇太后)가 또한 내구마(內廐馬)를 방목(放牧)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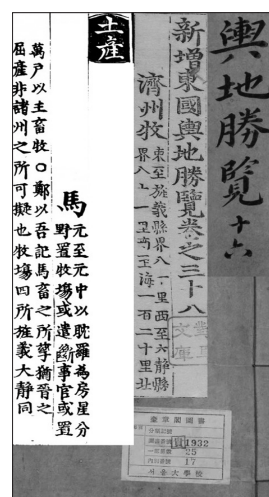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제주목’ 조〉



『고려사』 권57
‘탐라현(耽羅縣)’ 조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濟州牧)’ 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토산’ 조

고려시대 제주도는 여러 상황에 처해 있었다. 1271년 5월까지 진도(珍島)에 웅거 하던 김통정(金通精) 삼별초 일당이 김방경(金方慶)과 힌두(忻都), 대구(茶丘), 희(熙), 웅(雍) 등이 거느린 삼군(三軍)에 대패 당해서 탐라(耽羅)로 들어왔다. 그 뒤 김방경(金方慶)과 힌두(忻都), 대구(茶丘)를 중심으로 한 원나라 · 고려 연합군이 탁라(毛羅: 耽羅)에 웅거(雄據)하던 김통정과 삼별초(三別抄) 일당을 평정했는데, 그때가 고려 원종(元宗) 14년(1273) 4월 28일이었다. 그 뒤 대장군(大將軍) 김수(金綬)가 원나라에 가서 탁라(毛羅)를 평정한 것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해 6월 6일에 원나라가 탐라에 다루가치[達魯花赤/darughachil]를 설치했다. 다루가치는 중국 원나라 때에 고려 점령 지역에 두었던 부(府) 또는 벼슬을 이르는데, 점령 지역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거나 내정에 관여하였다.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1년(1276) 8월 25일’에, 원나라에서 타라치[塔刺赤]를 보내어 탐라 다루가치[耽羅達魯花赤]로 삼고, 말 1백 60필을 가지고 가서 기르게 하였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 ‘제주목, 건치연혁’을 보면, 충렬왕 3년(1277)에 원나라에서 탐라에 동 · 서 아막(東西阿幕)을 세우고 소와 말, 약대[駝], 나귀[驢], 양 등을 놓아먹이고 다루가치로 하여금 관리 · 감독하게 했다.

한편 『고려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원나라와 명나라에서 말을 징발해가거나 바치게 한 기록들이 있다.

世家 卷第三十一 1294년 5월 5일(갑인) 탐라인(耽羅人) 쿠케다이[曲怯大], 몽구다이[蒙古大], 타스바투[塔思拔都] 등이 원(元)에 가서 말[馬] 400필을 바쳤다.(필자 주: 이들은 탐라사람이 아니라 당시 탐라에 파견되었던 원나라와 몽골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世家 卷第三十一 1295년 3월 26일(경오)에 원나라가 바이테무르[伯帖木兒]를 탐라에 보내어 말[馬]을 징발해갔다.

世家 卷第三十一 1296년 2월 27일(을축)에 원나라가 탐라의 목축에 관한 일로 단사관(斷事官) 무을치[木兀赤]를 보냈다.

世家 卷第三十一 1296년 5월 27일(갑오) 원나라가 대장군(大將軍) 남정(南挺)을 탐라(耽羅)에 보내어 말[馬]을 바치게 했다

世家 卷第三十七 1347년 8월 8일(무인) 원나라 태복시(太僕寺)에서 이가(李家)의 사내종(奴) 테무르[帖木兒]와 안바얀부카[安伯顏不花]를 보내어 탐라

의 말을 징발하게 했다.

世家 卷第四十 1363년 6월 11일(무신) 탐라(耽羅) 만호(萬戶) 문아단부카[文阿但不花]가 동생 인부(仁富)를 보내어 양과 말(羊馬)을 바치게 했다.

世家 卷第四十三 1372년 3월 7일(갑인) 예부상서(禮部尙書) 오수남(吳秀男)을 보내 말(馬)을 바치게 했다.

世家 卷第四十三 1372년 11월 29일(임신) 명(明)나라가 대호군(大護軍) 김갑우(金甲雨)를 보내어 탐라의 말(馬) 50필을 바치게 했다.

世家 卷第四十四 1374년 4월 13일(무신) 명나라 황제가 예부주사(禮部主事) 임밀(林密) 등을 고려에 보내 탐라 말 2천 필을 바치도록 요구했다.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제주도에서 대단위로 말을 목축(牧畜)하기 시작한 것은 탐라가 원나라 수중에 들어간 다음해인 1277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296년에 원나라 태복시(太僕寺)에서 목축(牧畜)과 관련된 일로 단사관(斷事官)을 파견하면서 말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고려사』 ‘지(志) 권제36(卷第三十六)’에 전국에 설치한 목장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탐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나라가 제주를 지배하기 전에는 제주도에 공식적인 말 목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제주도 물목장[馬場·牧馬場]은 몇이나 있었던가?

조선시대 제주도 물목장[馬場·牧馬場]은 시대마다 수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목장을 일컫는 말도 달랐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토산(土產)’ 조를 보면, 당시 제주목의 물목장(馬牧場)은 4소(所)이고, 정의(旌義)와 대정(大靜)도 같다고 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당시 제주목의 물목장이 4소이고, 정의현과 대정현의 물목장도 각각 4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당시 제주도에는 모두 12소의 공립 목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세종실록』 세종 7년(1425) 11월 경신(25일) 기사를 보면, 병조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자마(雌馬) 100필을 일군(一群)으로 하여 군두(群頭) 1인을 정하고,

50필마다 각각 군부(群副) 1인을, 매 25필마다 목자(牧子) 1인을 정하며,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감목관(監牧官)이라 일컫는 감목(監牧)을 나누어 보내”는 것을 아뢰니, 임금의 재가로 그것이 시행되었다. 이때 “자마(雌馬) 100필을 일군(一群)으로 한(수말은 15필)” 것이 ‘둔(屯)’이다.

『세종실록』 세종 16년(1443) 5월 정축(1일) 기사를 보면, 이 당시부터 목장 축조(築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이 앞서 제주에 목장을 축조(築造)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라산(漢拏山) 허리로부터 평야에 이르기까지 마필을 놓아 마음대로 다니면서 키우게 하였사옵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주위에다 목장을 축조하고 공사의 마필을 아울러 모두 들여다 놓아먹인 뒤로는 마필의 수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목장 안의 풀이 성하지 못한데다가, 또 목장 밖을 통행할 수가 없으므로 말들이 여위고 약한 도손마(倒損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마(公馬)인즉 직원(職員)들이 각각 받은 마필을 5일마다 서로 교대하여 입번(立番)할 때에 수효를 헤아려 맡겨 주므로, 마초(馬草)가 부실(不實)한 평지에서 날마다 몰고 다니어 더욱 노곤(勞困)하여, 살이 내리게 되고 따라서 생산이 부실하오니, 가을철에는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그 사면에 쌓은 것을 헐어버리어 마필로 하여금 통행하면서 목양(牧養)하게 하고, 그 목장 밖의 전지를 경작하는 자에게는 우선 미리 알리어, 각각 밭머리에다 스스로가 축장(築場)하게 하옵소서. 직원이 받은 마필은 5일에 교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혹은 한 달, 혹은 한 달 걸리, 혹은 석 달을 걸려서 서로 교대하게 하고, 그 달 수와 기한(期限)은 제주의 수령과 감목관으로 하여금 편의 여부를, 경험이 많은 늙은이들에게 방문(訪問)하여 아뢰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세종 16년(1443) 5월 정축(1일) 기사〉

조선 중기의 문신 김상헌(金尙憲)이 1601년에 제주도에서 반란이 발생하여 진상 조사와 수령들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라는 임무를 띠고 여사로 파견되었다. 이때 제주도를 순력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남사록(南槎錄)』(1601~1602)이라는 글이다. 이 『남사록(南槎錄)』을 보면, 당시 제주도 목장의 수를 다음과 같이 50둔(屯)이라 기록했다.

제주목 국마(國馬) 33둔(屯)

정의현 국마(國馬) 12둔(屯)

대정현 국마(國馬) 5둔(屯)

세 고을 합계 50둔(屯)

국마(國馬)는 국둔마(國屯馬) 또는 둔마(屯馬), 곧 나라에서 경영하던 목장의 말을 이르는 말이다. 둔(屯)은 둔전(屯田)을 뜻하기도 하고, 둔장(屯場)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둔장(屯場)을 뜻하는 말로, 말이나 소 따위가 무리를 지어 풀을 뜯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대개 암말[雌馬] 100여 필에 수말[雄馬] 15필 정도를 무리지어 풀을 뜯게 했다. 이러한 목장을 둔마목장(屯馬牧場) 또는 둔마장(屯馬場)이라 했다.

이 기록을 보건대, 17세기 초반 제주도 국둔마(國屯馬) 목장은 50둔(屯)이 있고, 몇 개의 사둔(私屯)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중반에 이건(李健)이 제주에 유배 왔던 적이 있는데, 이때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8)를 남겼다. 이 기록에 “마둔(馬屯)은 매우 많다. 천(天)·지(地)·현(玄)·황(黃)으로써 한자를 알맞게 벌여 놓고 둔(屯) 이름을 붙였다. 한 둔(屯)의 말은 많지 않아서 100여 필에 지나지 않는다.(馬屯甚多 以天地玄黃 排字名屯 一屯之馬 少不過百餘匹)”라고 하였다. 이렇게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를 이용하여 이름 붙인 목장을 ‘자장(字場)’ 또는 ‘자목장(字牧場)’, ‘자둔장(字屯場)’ 또는 ‘자둔마목장(字屯馬牧場)’ 등으로 불렀다.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진이 남긴 『탐라지(耽羅志)』(1653)의 세 고을 ‘목양(牧養)’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11장(場) 58자둔(字屯)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제주목 목양(牧養) : 마장(馬場)은 장오리오름[長兀岳]에서 감은덕내[感恩德川]까지 목장이 갖춰 있는데, 무릇 7소(所) 38자(字)이다.

정의현 목양 : 3장(場) 17자(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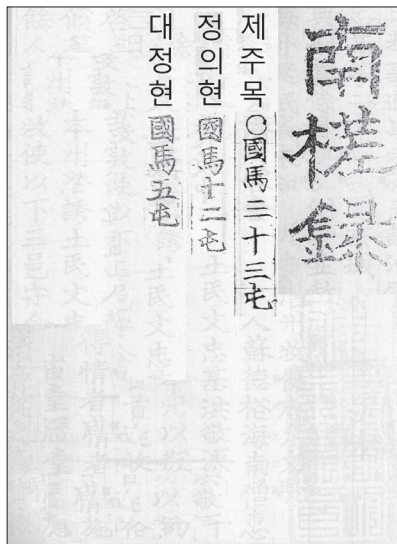
대정현 목양 : 1장(場) 3자(字)

삼읍(三邑) 통(通) 11장(場) 58자(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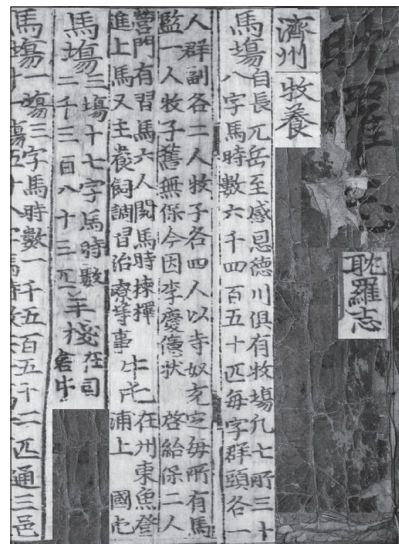
여기서 소(所)와 장(場)은 같은 개념으로 쓴 듯한데, 적게는 자목장(字牧場) 서너 개, 많게는 자목장 대여섯 개를 합하여 일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목장은 자둔마

목장(字屯馬牧場)의 줄임말로, 천자문(千字文)의 자호를 따서 둔마목장(屯馬牧場)이나 둔마장(屯馬場)을 나눈 것을 이른다.

17세기 중반에는 11장 58자둔이 있다고 했으니, 17세기 초반에 비해서 8둔 정도가 는 것이고, 적게는 서너 자(字)에서 많게는 대여섯 자(字)를 합쳐서 소(所) 또는 장(場)이라 하여 묶어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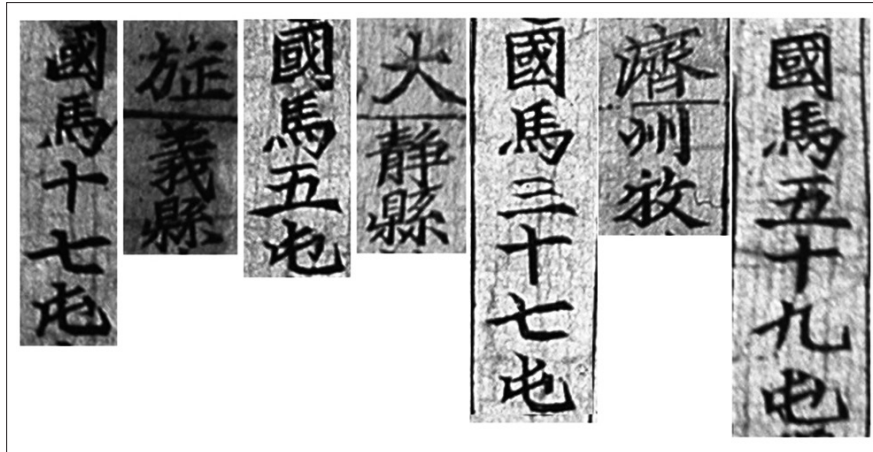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1653)

1679년에 제주 안핵어사(按察御史) 겸 순무어사(巡撫御史)로 제주도에 왔던 이증(李增)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남사일록(南槎日錄)』이다. 이 『남사일록(南槎日錄)』을 보면, 당시 정의현에 17둔(屯), 대정현에 5둔(屯)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제주목의 둔수(屯數)는 확실하지 않다. 김상헌의 『남사록』 기록과 비교할 때, 정의현이 12둔에서 17둔으로 늘었으니, 5둔이 늘었다. 이원진의 『탐라지』와 비교하면, 대정현이 2둔 늘었다.

17세기 말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고지도 2종이 있는데, 여기서 제주도 소장(所場)과 둔마목장(屯馬牧場), 자목장(字牧場) 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탐라도」(가칭) 서문에는 “국마(國馬) 59둔(屯)”이라 하여, 17세기 말에 59둔(屯)의 풀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말 고지도 「탐라도」 서문 : 59둔(屯)이 있다고 기록함.



17세기말 제주도 고지도(부분)

이 속에서 辰字屯馬牧場(진자둔마목장), 結字屯馬牧場(결자둔마목장) 등과 같이 표기한 자둔마목장(字屯馬牧場)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말 「濟州三縣圖(제주삼현도)」

이 속에서 黃字屯牧場(황자둔목장), 洪字牧場(홍자목장) 등과 같이 표기한 자둔목장(字屯牧場)과 자목장(字牧場)을 확인할 수 있다.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여러 그림 속에서도 소장(所場)과 둔마목장(屯馬牧場), 자목장(字牧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제주목사를 지낸 이형상이 남긴 『남환박물(南宦博物)』(170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남환박물(南宦博物)』(1704)의 ‘지마우(志馬牛)’조를 보면, 당시 제주 세 고을의 목장 수는 63곳이라고 했다. 그 63곳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제주목(濟州牧)의 목장: 34곳의 자목장

제1소(第一所)에는 천(天)·지(地)·현(玄)·황(黃)·우(宇)·주(宙)·출(出)자의 목장과 별목장(別牧場)인 천(天)·지(地) 두자의 목장이 있다. 이들 자목장(字牧場)은 별방소(別防所)에 속한다.

제2소(第二所)에는 홍(洪)·황(黃)·일(日)·영(盈) 네 자의 목장이 있는데, 이들은 조천소(朝天所)에 속한다.

제2소(第二所)의 일(日)·측(昃) 두 자의 목장은 화북소(禾北所)에 속한다.

제2소(第二所)의 결(結) 자 목장과 제3소(第三所)의 진(辰)·숙(宿)·치(致)·우(雨)·노(露) 자의 목장, 대3소(大三所)의 여(麗) 자의 목장은 애월소(涯月所)에 속한다.

제4소(第四所)의 장(張)·한(寒)·내(來)·서(署) 자의 목장과 대1소(大一所)의 왕(往)·추(秋)·수(收)·동(冬)·장(藏)·윤(閏)·금(金)·생(生) 자의 목장은 명월소(明月所)에 속한다.

대정현(大靜縣)의 목장: 5곳의 자목장

대정현(大靜縣)의 현(玄)·황(黃)·우(宇) 자의 목장은 모슬소(募瑟所)에 속한다.

별(列) 자와 별현(別玄) 자의 목장은 차귀소(遮歸所)에 속한다.

정의현(旌義縣)의 목장: 17곳의 자목장

정의현(旌義縣) 제1소(第一所)의 이(李)·내(柰)·개(芥)·강(薑)·해(海)·하(河)·담(淡) 자의 목장과 제2소(第二所)의 인(鱗)·잠(潛)·우(羽)·상(翔) 자의 목장, 제3소(第三所)의 용(龍)·사(師)·화(火) 자의 목장은 수산소(首山所)에 속한다.

채(菜)·중(重)·함(鹹) 자의 목장은 서귀소(西歸所)에 속한다.

산둔장(山屯場)은 감목관(監牧官)에 속하고 우도장(牛島場)은 별방소(別防所)에 속한다.

또한 검은 소 목장[黑牛場]이 있다.

南宮博物

誌馬牛

三邑牧場六十三內濟州琴一町天地玄黃宇宙出字及別牧
場天地二字屬於別防町琴二町洪荒月盈四字屬於朝天町
日具二字屬於永北町結字及琴三町辰宿致雨露字及大三
町爲麗字屬於湏月町琴四町張寒來暑及大一町往秋收冬
藏閏霜金生字屬於朐月町大靜玄黃字字屬於琴瑟町列字
別玄字屬於遮歸町旌義琴一町李柰芥薑海河淡琴二町鱗
潛羽翔琴三町龍師火字屬於首山町菜重臧字屬於西歸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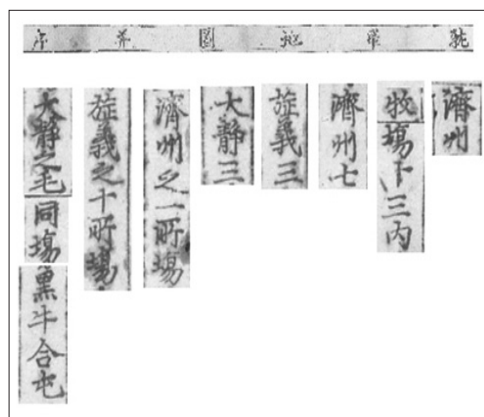
『남한박물(南宮博物)』(1704)의 '지마우(志馬牛)' 조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는 63둔(屯)의 '자둔마목장(字屯馬牧場)'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일군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1702)과 『남한박물』(1703) '지마우' 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장(所場)으로 묶어 제일소(第一所), 제이소(第二所), 제삼소(第三所) 또는 대일소(大一所), 대삼소(大三所) 등과 같이 불렀다.

그러던 것이 숙종 31년(1705)에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가 한라산 주변을 합하여 10둔(屯)으로 만들고, 경계를 정하여 돌담을 쌓았다. 이때부터 10소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뒤에도 10개 목장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성행했다.

그러나 이때에 제주목에는 일소장, 이소장, 삼소장, 사소장, 오소장, 육소장, 산둔장(산마장) 등 7개 큰 목장이 있었고, 대정현에는 칠소장, 팔소장, 모동장 등 3개의 큰 목장이 있었고, 정의현에는 구소장, 십소장, 천미장(별둔장/갑마장) 등 3개의 목장이 있었다. 그러므로 18세기 초반, 곧 1705년에 제주도 큰 목목장은 전체 13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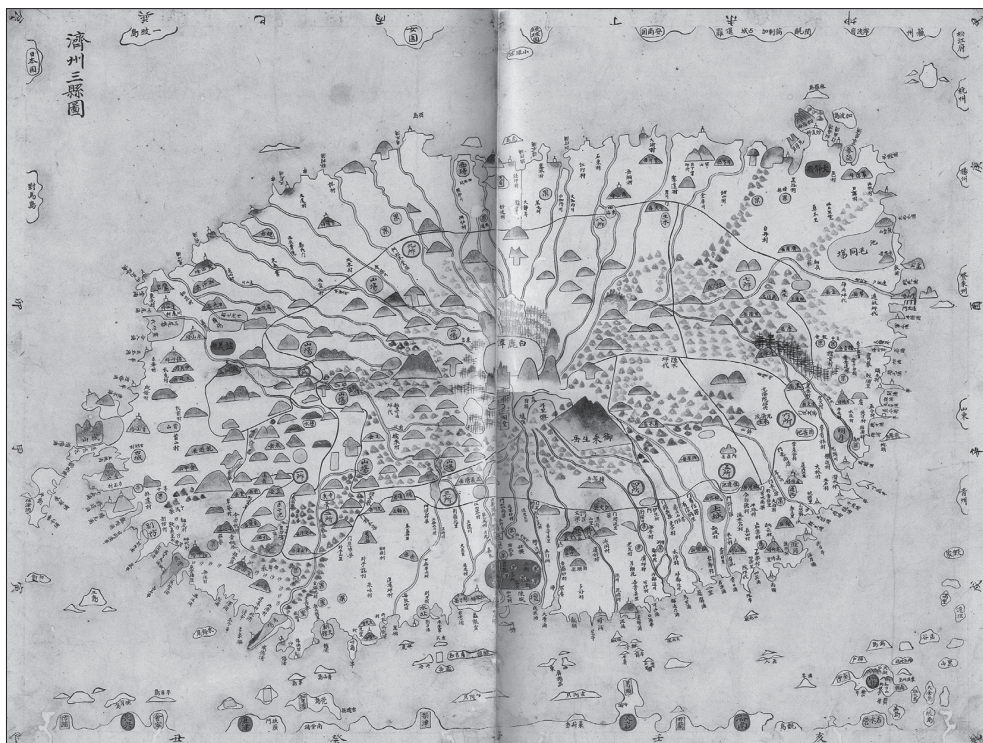
이 13개 목장은 1709년의 고지도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의 서문과 18세기 초반에 그려진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신지도(『해동지도(海東地圖)』에 수록되어 있음)의 서문에도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도에 13개 목장 윤곽이 그대로 그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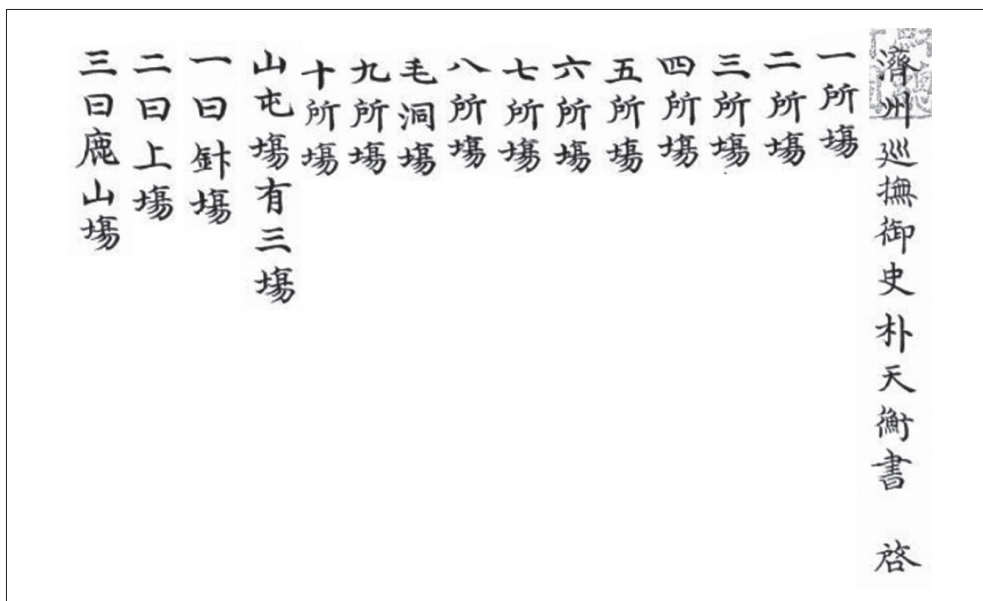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1709)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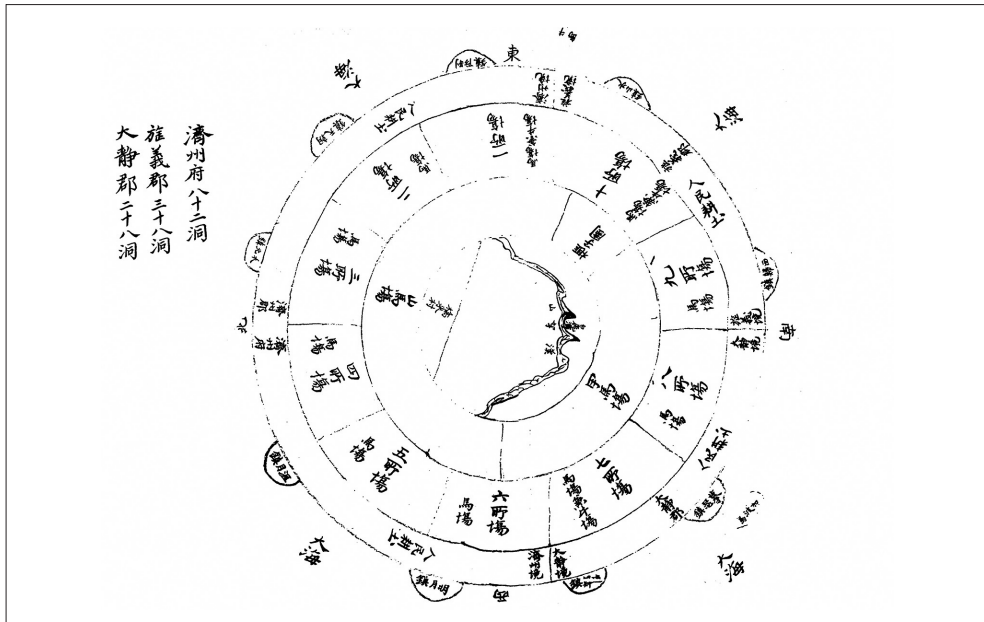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신지도(18세기 초)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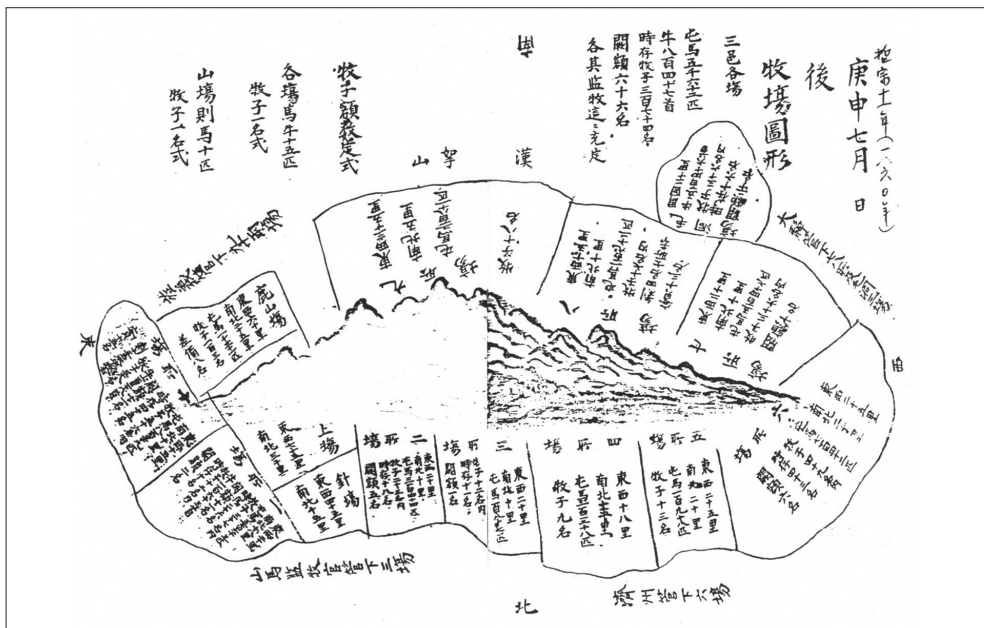
18세기 초반 「제주삼현도」 신지도의 1소장~10소장, 산장, 모동장, 천미장 등 13개 목장



「濟州巡撫御史朴天衡書啓」(1781)의 제주 말목장 목록



19세기 말 제주목장지도 : 1소장~10소장, 산마장, 갑마장 등 12개 목장 기록



『제주목장구폐원문(濟州牧場救弊完文)』(1860) 속의 제주 ‘목장도형(牧場圖形)’
1소장~10소장, 상장(上場), 침장(針場), 모동장(毛洞場), 녹산장(鹿山場) 등
제주관하육장(濟州管下六場), 대정관하칠팔소급모동장(大靜管下七八所及毛洞場), 정의관하구
십양장(旌義管下九十兩場), 산마감목관관하삼장(山馬監牧官管下三場)

4. 조선시대 제주도 둔마(屯馬) 수는 얼마나 됐을까?

조선시대 제주도 둔마(屯馬) 수는 얼마나 됐을까?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을 보면, 당시 제주도 둔마(屯馬), 곧 국둔마(國屯馬) 수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구 분	국마(國馬) 둔(屯)	웅마(雄馬)	자마(雌馬)/빈마(牝馬)	기타
제주목	33	990	2,316	
정의현	12	300	820	
대정현	5	86	194	
세 고을 합계	50	1,376	3,330	4,706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

웅마(雄馬)는 수말을 이르고, 자마(雌馬)와 빈마(牝馬)는 암말을 이른다. 17세기 초반에 국둔마의 수는 수말 1,376필, 암말 3,330필을 합하여 모두 4,700여 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사둔(私屯)의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1598) 4월 기축(11일)’ 기사를 보면, 제주 산마(山馬) 1천 필을 붙잡아 오도록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당시 제주 산마장에는 1천여 필 남짓의 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일기』의 ‘광해군 10년(1618) 10월 무진(13일)’ 조를 보면, “전교(傳敎)하기를, 제주 김만일(金萬鎰)이 사둔마(私屯馬)를 모조리 거두어들여 점검하면 1,100여 필인데, 한꺼번에 몰아 내오면 뒷날 불시의 용도가 있을 경우 매우 염려가 된다. 그러니 단지 1,2백 필만 수말로 점검해서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우선 남겨두어 기르도록 하라.”라고 했다.

그러므로 국둔마 4,700여 마리에 사둔마 1천여 필을 합하면, 17세기 초반에 제주도 말 수는 6천여 필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진이 남긴 『탐라지(耽羅志)』(1653)의 세 고을 ‘목양(牧養)’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세 고을 마필의 합계는 10,385필이다. 그런데 이 책의 ‘대정현, 목양’ 조 말미에 세 고을 마필의 합을 10,185필이라 기록했는데, 실제 세 고을의 마필 수 기록과 비교하니 200필의 차이가 난다. 하여간 18세기 중반에는 1만여 필의 국둔마(國屯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필 수	기 타
제주목	6,450	
정의현	2,383	
대정현	1,552	
세 고을 합계	10,385	10,185필(?)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1653)〉

1679년에 제주 안핵어사(按察御史) 겸 순무어사(巡撫御史)로 제주도에 왔던 이증(李增)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남사일록(南槎日錄)』이다. 이 『남사일록(南槎日錄)』을 보면, 당시 제주도 국둔마(國屯馬)의 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제주목 국마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다. 17세기 초반에 비해 17세기 후반에 정의현은 두어 배, 대정현은 9배 정도 말 수가 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국마(國馬) 둔(屯)	웅마(雄馬)	자마(雌馬)/빈마(牝馬)	기타
제주목	?	?	?	
정의현	17	952	1,822	
대정현	5	812	1,602	
세 고을 합계	22	1,764	3,424	5,188

〈이증의 『남사일록(南槎日錄)』(1679~1681)〉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3) 여러 그림을 통해서 보면, 당시 마필 수는 8,500여 필, 흑우(黑牛) 수는 620여 마리나 된다.

구 분	말 수(필)	黑牛
山場駟馬	2,375	
牛島點馬	262	
朝天操點	505	
別防操點	946	247
旌義操點	1,178	228
西歸操點	237	
大靜操點	849	228
明月操點	1,064	
涯月操點	1,040	
합계	8,456	703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3)〉

그런데 이형상의 『남환박물(南宦博物)』(1704) ‘지속(誌俗)’ 조의 ‘市貿買賣(시무매매)’ 설명에서는 당시 제주도 말이 7,600필, 흑우가 620마리라고 기록해서, 마필수에서 900여 마리가 차이 난다. 또한 이 책의 ‘지마우(志馬牛)’ 조에서는 “임오년(壬午年: 1702)의 마적(馬籍)에 부쳐 있는 것이 7,699필인데, 이 속에 산둔장(山屯場)의 것은 2,375필이다. 1년 안에 1,674필을 생산하고 522필이 죽었다.”라고 했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18세기 초반에 국둔의 마필 수는 8천 여 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05년의 제주도 국둔마의 필 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자마(雌馬)	웅마(雄馬)	계
일소장	644필	443필	1,087필
이소장	503필	397필	900필
삼소장	395필	328필	723필
사소장	490필	384필	874필
오소장	807필	717필	1,524필
육소장	944필	965필	1,909필
칠소장	419필	298필	717필
팔소장	259필	298필	457필
구소장	531필	317필	848필
십소장	782필	737필	1,519필
산둔장(산마장)	1,561필	791필	2,352필
모동장	13필	10필	23필
우도장	174필	170필	344필
계	7,522필	5,855필	13,277필

5. 조선시대 제주도 감목관(監牧官)과 진무(鎭撫), 마감(馬監), 군두(群頭), 목자(牧子) 수는 얼마나 됐을까?

감목관(監牧官)은 조선시대에 지방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6품의 무관 벼슬을 이른다. 제주도 감목관은 조선 초기부터 여러 부침이 있었다.

태종 8년(1408) 1월 임자(3일)부터 제주도에 감목관을 두었다. 당시는 제주도가 동도(東道)와 서도(西道)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감목관 둘을 두었는데, 동도 감목관과 서도 감목관이었다.¹⁾

세종 10년(1428) 11월 신해(3일)부터 제주목 감목관은 제주판관이, 정의현과 대정현 감목관은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이 겸임하게 했다.

세종 13년(1431) 2월 병진(1일)에는 제주 감목관을 판관과 현감으로 겸임하지 말고 그 고을의 자제를 택하여 임명하도록 했다.

『세종실록』의 ‘세종 13년(1431) 3월 무인(14일)’ 기사와 같은 해 ‘6월 갑오(2일)’ 기사에서 ‘제주동남감목관(濟州東南監牧官), 제주 정의·대정과 동서감목관(濟州旌義大靜及東西監牧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목 감목관 2인, 정의현과 대정현 각 1인을 합해서 4인의 감목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13년(1431) 11월 병술(25일) 기사와 세종 16년(1443) 4월 임술(15일) 기사에서 제주 세 고을 수령이 다시 감목관을 겸임하게 했다.

세종 16년(1434) 4월 계유(26일)부터 2품 이상의 감목관이 파견되었다.

세종 22년(1440년) 5월 정미(6일)에 제주목사가 감목관을 겸하게 하고, 세 고을의 마정(馬政)과 목양(牧養), 축산(畜産) 등을 관할하게 하고, 6월 경진(10일)에는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감목(監牧)을 겸하면 제주도안무사지감목사(濟州道按撫使知監牧事)로 부르게 했다.

세종 23년(1441) 7월 임자(18일)에 정의와 대정현감에게 감목관을 겸하게 했다.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조에는 제주도에 감목관 2인이 있다고 했는데, ‘제주목’ 조에는 判官이 감목관을 겸하고, 정의현감이 감목관을 겸하고, 대정현감이 감목관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무(鎭撫)는 조선 초기에 제주도 감목관 밑에 두었던 벼슬로, 각 감목관 밑에 2인을 뒀서 모두 4인이 있었다. 방목하는 마필을 관리하고 살피는 일을 담당했다.

조선 『세종실록』 세종 7년(1425) 11월 경신(25일) 기사를 보면, 병조에서 임금에

1) 조선 초기에 제주도에서는 제주판관(濟州判官)이나 정의현감(旌義縣監), 대정현감(大靜縣監)이 세 고을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였다. 감목관은 고려시대에 愛馬(애마), 孳長官(자장관), 提領(제령) 등으로 불렸는데, 제주 都安撫使(도안무사)의 건의에 따라 고쳤다.

게 아뢰기를, “자마(雌馬) 100필을 일군(一群)으로 하여 군두(群頭) 1인을 정하고, 50필마다 각각 군부(群副) 1인을, 매 25필마다 목자(牧子) 1인을 정하며,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감목관(監牧官)이라 일컫는 감목(監牧)을 나누어 보내”는 것을 아뢰니, 임금의 재가로 그것이 시행되었다. “자마(雌馬) 100필을 일군(一群)으로” 한 것이 둔(屯)이다.

산마장(山馬場)의 감목관은 17세기 중반부터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이라 하여, 김만일(金萬鎰)의 후손으로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김대길(金大吉)이 맡고, 두 번째는 김사종(金嗣宗)이 맡고, 세 번째는 김대진(金大振)이 맡고, 네 번째는 김진욱(金振煜)이 맡았다. 18세기 초반 한때 정의현감(旌義縣監)이 산마감목관을 겸직하기도 했다.

마감(馬監)은 말을 감독하는 관리 가운데 하나로, 매 소(所: 所場 - 여러 개의 자목장을 하나로 묶은 목장의 단위)마다 마감(馬監) 1인을 두었다.

군두(群頭)는 관아에서 경영하는 목장에서 일하던 일꾼의 우두머리를 이른다. 오늘날은 이 말을 들을 수 없는데, 예전에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원진의 『탐라지』 ‘목양’조를 보면 群頭(군두)라 하고, 매 자(字: 字場 · 字牧場)마다 1인(人)을 배치했다.

제주도에서 마소를 키우는 사람을 ‘테우리’라 불려왔다. **똥**[馬]을 키우는 사람은 ‘똥테우리’라 하고, **쉐**[牛]를 키우는 사람은 ‘쉐테우리’라 불렀다. ‘테우리’의 ‘테’는 **떼**[群] 또는 **떼**(茅 · 草)를 이르는 말이고, ‘우리’는 ‘**블**->**불**->**울**’에 명사형성접사 ‘-이’가 붙어서 형성된 말인 듯하다. 곧 ‘테우리’는 **떼**[群] 또는 **떼**(茅 · 草)와 늘 붙어서(가까이 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테+블-+-이>테+울-+-이’의 구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테우리’에 대응하는 표준어 한자어가 목자(牧者)나 목자(牧子), 목동(牧童) 등이다. 조선 중기 때, 1둔(屯)은 암말 100필, 수말 15필을 일군(一群)으로 하고, 목자(牧子)는 21명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마필 수가 달라졌지만, 목자 수도 5,6명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10여 명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을 보면, 牧子(목자)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 제주목 33둔(屯)에 속한 목자(牧子)는 315명이고, 정의현 12둔(屯)에 속한 목자(牧子)는 84명이고, 대정현 5둔(屯)에 속한 목자(牧子)는 24명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므로 17세기 초반 제주도 국둔장(國屯場)에 속한 ‘테우리’는 모두 423명이었다. 여기

에는 사둔(私屯)에 속한 ‘테우리’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500여 명이 ‘테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牧子(목자)	기타
제주목	315	
정의현	84	
대정현	24	
계	423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

이원진의 『탐라지』 세 고을의 ‘목양’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구분	군두(群頭)	군부(群副)	목자(牧子)	기타
제주목	매 자(字) 1인(人) 38인	매 자(字) 2인(人) 76인	매 자(字) 4인(人) 152인	시노(侍奴)로 충정 (充定)
정의현	매자 1인 17인	매자 2인 34인	매자 4인 68인	
대정현	매자 1인 3인	매자 2인 6인	매자 4인 12인	
계	58인	116인	232인	

1679년에 제주 안핵어사(按察御史) 겸 순무어사(巡撫御史)로 제주도에 왔던 이증(李增)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남사일록(南槎日錄)』(1679~1681)이다. 이 『남사일록(南槎日錄)』을 보면, 당시 제주도 목자(牧子)와 호보(戶保)의 수가 1,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구분	목자(牧子)	호보(戶保)	비(婢)	기타
제주목	800		?	
정의현	408		145	
대정현	230		156	
계	1,438		301	301

〈이증(李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1679~1681)〉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3) 여러 그림을 통해서 보면, 당시 목자

(牧子)와 보인(保人)을 아울러서 1,230여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의 『남환 박물관(南宦博物)』(1704) ‘지속(誌俗)’ 조의 ‘市貿買賣(시무매매)’ 설명에서, “목장 1,200명은 모두 공천(公賤)”으로서, 빠진 때에는 정원을 보충하는데, 이들에게는 위전(位田)이 없고 매우 가난해서, 네 계절은 물론이고 번(番)도 나누어 선다고 했다.

구분	結柵軍	驅馬軍	牧子·保人	참고
山場駟馬	2,602	3,720	214	
牛島點馬			23	
朝天操點			87	
別防操點			187	
旌義操點			190	
西歸操點			39	
大靜操點			123	
明月操點			185	
涯月操點			181	
합계			1,229	

18세기 중반의 『증보 탐라지』의 세 고을 목양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목장과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8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했으니, 18세기 초반에 비해서 400여 명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군두(群頭)·목자(牧子) 병(井)	참고
일소장	74명	
이소장	54명	
삼소장	46명	
사소장	52명	
오소장	74명	
육소장	100명	
칠소장	35명	
팔소장	31명	
구소장	46명	
십소장	82명	
산둔장(산마장)	185명	
모동장	3명	
우도장	35명	
계	817명	

6.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바친 공마(貢馬)는?

제주도는 고려시대에 원나라 지배에서 벗어난 뒤에도, 국가에서 경영하는 물목장이 그대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말은 대부분 국둔마(國屯馬) 또는 공마(貢馬)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바쳐졌다.

공마(貢馬)는 중국이나 국가에 공납(貢納)하던 말을 이르는 말이다. 원나라 침입 이후에 고려시대에는 제주도에서 기른 말을 정기적으로 원나라에 공납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명나라에 말을 공납했다. 탐라가 고려로 완전히 환속(還屬)된 뒤에는 고려와 조선에 말을 공납했다.

조선 『태종실록』 ‘태종 12년(1412) 4월 26일(경진)’ 조를 보면, 당시 제주에서 말을 바쳤는데, 도안무사(都按撫使)가 7필, 국둔마(國屯馬) 64필, 탄일 진상마(誕日進上馬) 10필, 고봉례(高鳳禮)가 집에서 사사로이 기르던 말 2필, 고자림(高自臨)이 1필, 문충좌(文忠佐)가 2필 등 모두 86필의 말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었다.

『세종실록』 ‘세종 6년(1424) 11월 20일(신묘)’ 조를 보면, 제주 도안무사(濟州都按撫使)가 국둔마(國屯馬) 3백 60필을 바쳤다.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3월 2일(병인)’ 조를 보면, 당시 제주(濟州)의 국둔마필(國屯馬匹) 속에서 3세 이상 6세 이하의 새끼 없는 암놈 5백 필을 뽑아서 황해도(黃海道)의 초도(椒島)·백령도(白翎島)·기린도(麒麟島) 등의 국둔(國屯)에 분산해 기르도록 했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1653) ‘제주목, 공헌(貢獻)’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구 분	이원진 『탐라지』	『탐라순력도』 ‘공마봉진’	18세기 중후반 ‘증보 탐라지’	기타
遞任馬	목사·판관 각 3필 양 현감 각 3필		목사·판관 각 3필 양 현감 각 3필	
三名日馬	탄일마 20필 동지마 20필 정조마 20필	탄일마 20필 동지마 20필 정조마 20필	탄일마 20필 동지마 20필 정조마 20필	
年例馬	8필	8필	8필	
歲貢馬	100필 임오년(1642) 100필 추가	200필	200필	
御乘馬	式年 20필	20필	20필	
差備馬	式年 80필	80필	80필	
凶咎馬	式年 100필	32필	100필	
驚駘馬		33필		
계		20수		

산둔장(山屯場: 또는 산마장)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치는 수가 달랐는데, 18세기 초반에는 식년(式年)에 200필을 바치도록 했다.

7. 마무리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은 천자문의 자호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적게는 50여 필, 많게는 100여 필(때에 따라서는 100여 필이 넘을 때도 있었음.)을 한 둔(屯) 또는 한 자둔(字屯)으로 삼아 작은 목장을 꾸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게는 서너 둔이나 서너 자둔, 많게는 대여섯 둔이나 대여섯 자둔을 한 목장으로 묶어 소(所) 또는 장(場)이라 했다. 그러다가 18세기 초반에 63둔으로 나뉘어 있던 목장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10개의 둔 또는 소장으로 만들고, 여기에 산둔장(산마장), 모동장, 우도장 등을 합쳐 13개 목장을 운영하였다.

이들 목장을 통할하는 사람은 감목관(監牧官) 또는 감목(監牧)이라 하고, 고을 수령이 겸임하기도 하고, 그 지방 출신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도 했다. 감목관 밑에는 진무와 마감(馬監)을 두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두(群頭)와 목자(牧子) 등을 두어 운영하였다. 목자(牧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보인(保人)이나 호보(戶保)를 두어 운영하였다. 이 목자들이 오늘날 전하는 ‘테우리’, ‘몰테우리’에 대응하는 말인 듯하다.

조선 초기에는 제주도에서 바치는 세공마가 1백 필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적을 때는 260여 필을 바치고, 많을 때(주로 식년일 때)는 460여 필을 바쳤다. 인조 19년(1641) 이전에는 세공마를 100필씩 바쳤는데, 이후에는 100필이 추가되어 200필씩 바쳤다. 산둔마(山屯馬)는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식년에 특별히 바쳤는데, 마필 수가 적게는 50여 필에서, 많게는 200여 필이나 되었다. 이러한 공마는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초운(初運), 재운(再運) 또는 이운(二運), 삼운(三運) 등으로 나누어 보냈다. 말이 병들거나 죽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태풍 따위를 만나서 표몰하거나 하면 운반 책임자는 물론 목사나 현감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흉년을 당했을 때는 공마(貢馬)를 올리는 것을 정지하기도 했다. 제주발전포럼